

2주차 문학 - 고전시가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푸른 바다보다 더 푸른 바다 같은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독서와 문학이 격주로 금요일 10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 팔로우하고 좋은 글 보세요!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국어 모의고사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1인 연구소입니다.

이번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 공유도 그 활동의 일부입니다.

현재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무료 모의고사 배포, EBS 자료 공유, 문항 공급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가 발간한 '단지하프모의고사'는 수능의 기조와 난이도를 동시에 잡은 모의고사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직 국어강사께서 '추론력과 적용력을 키우기에 탁월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 문항들의 품질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하나, 지문의 조사 하나까지도 고심해 문제를 만들며, 꼼꼼한 검토진을 통해 문제의 완성도에 더욱 만전을 기합니다.

이번 '매주 23수특 평가원 형식 N제'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학습에 활용하시고 저희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에 대해 아아가셨으면 합니다. 입시에서의 전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단지하프모의고사 구매하기 ↓



협업, 문항 공급은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로 문의 바랍니다.

제 1 교시

2주차 문학 - 고전시가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騎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廊)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김완진 역>
 - 충담사, 「찬기과랑가」 -

(나)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김완진 역>
 - 월명사, 「제망매가」 -

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오르고자 하는 물아일체의 경지이다.
- ② 화자가 느끼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이다.
- ③ 화자가 대상과 동병상련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④ 화자가 살아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 ⑤ 화자가 품어 온 의구심을 해소하게 하는 실마리이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② ㉠은 ㉡와 달리 이별로 인한 망설임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 ③ ㉠은 ㉡와 달리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심정이 표출된 것이다.
- ④ ㉡는 ㉠와 달리 과오에 대한 성찰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 ⑤ ㉡는 ㉠와 달리 문제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내포된 것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시적 배경을 나타내거나, 자연물이 지닌 속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나 태도, 대상의 모습이나 특성, 시적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낸 (가)와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담은 (나)도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가)의 ‘수풀’은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자연물로,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가지가 높’은 ‘잣나무’는 고결한 이미지를 환기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눈’은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련을 이겨 내는 대상의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군.
- ④ (나)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역동적인 시적 분위기를 정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나)의 ‘잎’이 ‘이에 저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과 이별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닭은 곳 아즐가 닭은 곳 소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이별할 바엔 아즐가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대* 아즐가 괴시란대 울면서 좃겠나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B]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끈이야 아즐가 끈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천 년을 아즐가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신(信)이야 아즐가 신이야 끊어지리까 나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느냐 사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각시 아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가는 배에 아즐가 가는 배에 었었느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배 타 들면 아즐가 배 타 들면 꺾으리이다 나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소성경: 작은 서울.
*고외마른: 사랑하지마는.
*괴시란대: 사랑하신다면.
*나난: 의미 없이 흥을 일으키는 여음구.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임과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이, [B]에는 임과의 이별을 참아낼 수 있게 된 변화의 계기가 제시되어 있다.
- ② [A]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B]에는 이별을 한다고 해도 임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기 위해 화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B]에는 임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화자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열거되어 있다.
- ④ [A]에는 떠나려는 임을 따라갈 수 없게 된 화자의 처지가, [B]에는 떠나간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A]에는 떠나려는 임의 제안을 거절하는 화자의 모습이, [B]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능한 상황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5. <보기>의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작품에 언급된 소재의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품의 ‘끈’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과 ‘끊어지리까’라는 구절을 통해 바위에 떨어졌을 때 깨어지는 구슬과는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고, 떨어져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특징을 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연에 제시된 ‘서경’이나 ‘길쌈베’는 어떤 구절들을 활용하여 그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좋을지 말해 볼까요?

- ① ‘서경’은 ‘서울이지마는’과 ‘소성경’을 통해 변화한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서경’은 ‘닭은 곳’을 통해 기반을 잘 갖추었다는 특징이, ‘고외마른’을 통해 화자가 떠나기 싫어하는 곳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③ ‘길쌈베’는 ‘이별할 바엔 길쌈베 버리고’를 통해 임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④ ‘길쌈베’는 ‘괴시란대’를 통해 화자가 임의 사랑을 받게 된 사연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까닭이 확인됩니다.
- ⑤ ‘서경’과 ‘길쌈베’는 ‘울면서 좃겠나이다’를 통해 화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이 확인되어, 오히려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는 소재가 됩니다.

6. <보기>와 관련지어 '3연'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방어 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의 불만에 직면한 인간이 불안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를 말한다. 이 작품 속 화자도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와 '전위'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합리화'는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위'는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방어 기제를 말한다.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 ①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에게 어찌하여 '배 내어 놓느냐'라고 표현한 것은 이별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사공'에게서 찾아 상처를 줄이려는 행위일 수 있겠군.
- ② '합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임이 '배 타 들면 꺾어 리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임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화자가 느끼는 자책감을 줄이려는 심리와 관련이 있겠군.
- ③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네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와 같이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행위일 수 있겠군.
- ④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을 사람들을 '가는 배에 엮'는 능동적 주체로 표현한 것은 강을 건너는 임의 선택을 사공이 주도한 것처럼 초점을 바꾸어 받아들이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겠군.
- ⑤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임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 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사람을 그리는가
지금도 옛 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청송(靑松)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草屋) 삼간(三間)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홍중에 진념(塵念)*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요 구름 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피는 칩칩(疊疊)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故人)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상산(商山)의 채지(採芝)하러 부디 냇이 갈 것인가*
따라올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 -

*진념: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상산의 채지하러~냇이 갈 것인가: 한나라 고조 때 네 사람의 백발 노인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숨어 버섯을 캐며 살았다는 고사를 가리킴.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며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제5수>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제시하며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제7수>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9수>에서는 청유의 내용을 달리하며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벗’이 화자를 찾는 것을, ㉡은 화자가 ‘고인’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다.
- ② ㉠은 ‘벗’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은 ‘고인’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하는 자연물이다.
- ③ ㉠은 현실과 소통하기 위해 ‘벗’이 선택한, ㉡은 현실과 멀어지기 위해 ‘고인’이 선택한 자연물이다.
- ④ ㉠은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을, ㉡은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 ⑤ ㉠은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한 ‘벗’의 노력을 환기하는, ㉡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좌절하는 ‘고인’의 모습을 환기하는 자연물이다.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월곡을 ‘벗’이라 부르며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지금 사람’과 달리 ‘옛 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옛 사람’을 벗이라 말하며 월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초옥 삼간’은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홍중에 진념’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용추동 밖’과 ‘구름 다리 위’는 화자가 ‘벗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로, 화자는 ‘밤마다 외로운 꿈’에서만 ‘벗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고인의 집터’는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산의 채지’는 화자가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일로,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이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 한호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임제 -

(다)

곡구룡(谷口嘯)*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 글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마초아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오경화 -

*곡구룡: 피꼬리가 우는 소리의 한자 표현.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시상 전개 of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드러내고 있다.

11. (다)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곡구룡 우는 소리’는 화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응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군.
- ②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군.
- ③ ‘작은아들’, ‘어린 손자’가 함께 언급되는 것에서 삼대가 영위하는 가족의 삶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며늘아기 베 짜기’와 ‘작은아들’의 ‘글 읽기’는 병치되어 성별에 따른 행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어린 손자’의 ‘꽃놀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분주함과 대비를 이루어 화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군.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에 사용된 어떤 소재는 그것의 인접성에 의해서 인간의 다양한 정황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시적 수단이 된다. 이때 연상 작용의 결과로서 인접성은 두 대상이나 개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거나 물리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는 물론 사건의 원인과 결과 같은 논리적인 관련을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에 인식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인간의 사고나 태도의 의미를 밝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달’은 어제 지고 오늘 다시 돌아 오므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시간적 인식 속에서 자연의 순환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가)에서 ‘박주산채’는 화자가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이루기 어려운 이상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③ (나)에서 ‘홍안’이 사라지고 ‘백골’만이 묻힌 상황은 시간적 흐름에 의한 대상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④ (나)에서 ‘잔’은 잡아 권할 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의 부재라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생의 허무감이라는 관념을 담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⑤ (다)에서 ‘술’은 ‘지어미’가 걸러 남편인 화자에게 ‘맛보라고’ 권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황 속에서 부부 사이의 돈독한 정을 연상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랑이 거짓말이 임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뵈단 말이 괴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비리오
- 김상용 -

(나)
 임이 헤오시매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情)을 누구에게 옮기신고
 처음에 피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설우라
- 송시열 -

(다)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전전불매(轉轉不寐)하고 임 둔 입을 생각는고
 차라리 내 먼저 식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 송이 -

(라)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깨를 놓고
 깨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새에 용거북 자물
 쇠로 깊이깊이 잠갔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달이 서른 날이어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라
- 작자 미상 -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13. (가)~(라)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경험에서 화자가 얻게 된 윤리적 교훈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신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화자가 갖게 된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④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당혹감을 느꼈던 화자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

14. (가)~(라)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라)는 연쇄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다)와 (라)는 점층법을 사용하여 고조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의 시조에서 사랑은 매우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였다. 그중 남성 사대부들이 사랑의 정감을 노래한 시조들은 당대의 정치 현실과 관련된 맥락에서 임금에 대한 태도를 읊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 예로 이조 판서, 우의정 등 요직을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 왕족이 피란한 성의 함락을 막기 위해 화약에 불을 질러 순절한 김상용이 지은 (가), 그리고 조선 후기 노론(老論) 세력의 거두로 정치적 부침(浮沈)이 심했던 인물인 송시열이 지은 (나)와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한편 (다)에서 알 수 있듯 조선 시대에는 기녀들도 사랑의 정한을 서정성 짙은 시조에 담곤 했는데, 여기에는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조건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① (가)에서 ‘잠 아니 오’는 것이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를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절을 한시도 잊지 않는 작가의 태도와 관련지을 수도 있겠군.
- ② (나)의 ‘누구에게 읊기신고’를 통해 작가와 노론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상황을 이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군.
- ③ (나)에서 ‘처음에 피시던’ 것은 애초에 임금이 노론 세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던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입 둔 입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녀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군.
- ⑤ (다)의 ‘차라리 내 먼저 식어서’에는 극한의 상황을 언급할 정도로 애절한 사랑의 정한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평시조의 초·중·종장은 각각 네 개의 마디가 운율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의미상으로는 대체로 두 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句)를 이루기 때문에 각 장은 두 개의 구로 구성된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3장 6구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글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를 3음절로 고정하는 것은 형식상의 규칙적 특성이다.

한편 이러한 평시조와 차이를 보이는 양식으로서 사설시조가 지닌 형식적 특성은 파격의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다. 평시조의 규칙을 따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종장의 첫째 마디를 3음절로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형식상의 파격적 자유는 조선 후기에 다양한 주제의 사설시조가 창작 및 향유되는데에 영향을 끼쳤으며,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는 사설시조 중에서 그 수단으로 장황한 열거를 사용한 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형식적 파격이라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초장은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라는 네 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평시조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 ② ‘너 오는’으로 시작해 ‘아니 오더냐’로 끝나는 종장이 평시조와 달리 길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은 3장 6구라는 형식적 틀을 벗어나 있다.
- ③ ‘성’, ‘담’, ‘집’을 축조하고 ‘뒤주’ 속의 ‘궤’에 ‘너’를 놓은 뒤 단단히 잠근다는 내용의 장황한 열거는 형식상의 파격적 자유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시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한 예로 볼 수도 있다.
- ④ ‘한 달이’는 이 작품이 다른 사설시조들과 공유하는 형식적 규칙성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한 달이 서른 날이어나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라는 종장은 평시조와 달리 두 개가 넘는 구(句)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상의 파격을 보여 주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리고 우활(迂闊)*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땀감 삼아
 닛 흙 밥 서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사
 얼마 만에 받은 밤에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벌여 줄 밀듯 나아오니
 인정천리(人情天理)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
 덜 데운 숯불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옮길런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옹게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가을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瓶)에는 담겼으랴
 다만 하나 빈 독 위에 어른 털 돋은 늙은 쥐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強盜)로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
 ㉢석서삼장(碩鼠三章)*을 시시(時時)로 음영(吟詠)하며
 탄식(歎息) 무언(無言)하며 머리 굽을 뿐이로다
 이 중(中)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빈곤(貧
 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에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중략)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 오래러니
 먹고살 걱정으로 어지버 잊었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녹색(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清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가라 하라
 님들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이제야 소 빌리기 맹세(盟誓)코 다시 말사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렇 발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여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이 여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百年)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산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은 뜻은 없노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죽(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할 이 뉘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석서삼장: 임금이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착취함을 큰
 쥐에 비유하여 풍자한 시.
 *유비군자: 문채(文彩)가 나는 군자라는 뜻으로,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원헌: 공자의 문하에서 가난을 감내하며 성리학적 수양에 힘썼
 던 인물.
 *석숭: 중국 진나라 때의 부호.

1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봉사하며 살아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구의 방식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이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옛 문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물아일체를 실현한 것에 대
 한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과거의 실제 인물을 끌어들이 자신의 생각이 그르지 않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8.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
 해야 할 것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 상황
 을 나타낸 것이다.
 - ③ ㉣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이고, ㉤는 화자가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다.
 - ④ ㉣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이고, ㉤는 화자가 이상
 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 ⑤ ㉣는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 계기이고, ㉤는 화자
 가 운명을 거부하게 된 계기이다.

19. <보기>에 제시된 (가)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누항사」의 전반부에는 궁핍한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가)궁핍한 처지의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 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하여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를 드러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①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 두고’와 ‘풍조우석에 찍은 짙을 땀감 삼아’에 드러나는 궁핍한 모습은 전란 후 피폐해진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와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의 강도로다’에는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생애 이러하다 장부 뜻을 읊길런가’와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는 곤궁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선비로서의 다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와 ‘충효를 일삼아’에는 곤궁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겨우 얻은 것을 다 쥐구멍에 빼앗기고’와 ‘이 중에 탐욕스런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에 드러나는 비참한 현실은 전란으로 인해 궁핍하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꼬
 주렴(珠簾)을 손수 걷고 ㉠옥계(玉階)에 내려가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안개문 구름창 천리만리 가렸구나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靑鸞)으로 ㉡광한궁(廣寒宮) 날아올라
 듣고서 못 뵈던 임 첫날에 잠깐 보니
 내 임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이렇게 뵈고 다시 뵈 일 생각하니
 삼천 명의 미인들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벌였는데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 가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옥경(玉京)을 떠나서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인생 박명(薄命)이 이처럼 생겼던가
 쓸쓸한 십 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날을 어찌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아니 불쌍한가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뵈까 하였더니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 리 약수(弱水)*에 청조사(靑鳥使)*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꽃고
 두 눈의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먼 길 멀다 앓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 듯이
 옥돌 위 쉬파리가 온갖 허물 지어내니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임이 짐작 안 하실까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백 년 인생에 이내 임 만나 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믿었더니
 그사이 무슨 일로 이 맹세 버려두고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사랑이 싫증 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중략)

풍상(風霜)이 섞어 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朔風)이 몹시 부니

하루를 별을 쥘 열흘 추위 어찌할까
은침(銀鍼)을 빼내어 오색(五色)실 꿰어 놓고
입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입이 언제 살피실까

음력 선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단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간장(肝腸)이 다 썩어 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눈물은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A]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언어에 공교(工巧)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거문고 줄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子規)의 녀이 되어
밤마다 이화(梨花)의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五更)에 잔월(殘月)을 섞어 입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으로, 길이가 삼천 리나 되며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을 정도로 물의 부력이 약하여 건널 수 없
다고 함.

*청조사: 파랑새.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황후 진아교
가 당시의 문장가인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부를 짓게 하여 자신에
게 무심했던 무제의 마음을 돌려 충애를 받게 된 일을 가리킴.

2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위의 서리’와 ‘뜰가의 매화’에서 관찰한 현상을 제시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반벽청등’에서 ‘창에 비친 매화 달’로 시선을 이동하여 계절
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황금이 많으면’이라는 가정적 상황과 ‘뒤집힌 동이’에 해가
비치는 현실의 상황을 대응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조물주의 처분’이
라고 여기며 자신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화
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쟁을 꺼내어’ 노래를 하는 상황과 ‘거문고 줄 끊어져’ 연

주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병치 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원인을 부각하고 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입을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은 ㉡에서 입을
만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② ㉡에서 화자는 입과의 재회를 기약하지 못한 채 ㉢으로 내
려오는 것을 아쉬워한다.
- ③ ㉢에서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화자는 ㉣에서 입과 재회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 ④ ㉣에서 화자는 입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에서 입을 그리워한다.
- ⑤ ㉤에 가기 위해 화자는 자물쇠로 ㉢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
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우인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인목 대비를 안타까워하
는 마음을 시를 통해 표출했는데, 조우인의 반대편에 있던
대북파는 조우인의 시에 광해군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다고 모함한다. 이로 인해 조우인은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자도사」는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
된다. 조우인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를 지상으로 적강한
선녀에 비유하고, 임금을 천상계의 옥황에 비유하며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포함한 대북파를 비난하고
있다. 또한 조우 인은 자연물을 통해 임금의 소식을 알게 되
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를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도 드러내고 있다.

- ① ‘삼천 명의 미인들’과 ‘궁궐의 고운 여인’들과 달리 화자가
‘빛바랜 화장’과 ‘탐탁지 않은 태 도’를 자랑한 것은 작가가
불경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고 모함을 받은 이유에 해당하
겠군.
- ② ‘청조사’는 입이 계신 곳에서 ‘삼천 리 약수’를 건너 날아왔
다는 점에서, 작가에게 임금의 소식을 전하는 자연물에 해당
하겠군.
- ③ ‘옥돌 위 쉬파리가 온갖 허물’을 지어낸 후 ‘사랑의 첫 말씀’
을 버려두고 입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포함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몰라주는
임금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입의 옷을 깎고 싶지만
자신의 ‘깊은 정을 입이 언제 살피’ 실지 걱정하는 모습은
임금에 대한 마음을 남녀 관계에 빗대어 드러낸 것에 해당
하겠군.
- ⑤ ‘죽어서 자규의 녀’이 된 후 밤마다 ‘입의 잠을 깨우’겠다는
말을 통해, 임금에게 자신의 억 울함을 하소연하려는 작가의
바람을 알 수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덴둥이를 들쳐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 이전 강산 의구하
나 인정 물정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쭉대밭이 되었구나 /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뚱뚱 떠서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녀이로다 / 새야 새
야 두견새야 내가 울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움을 불러내나 / 반가워서 울었
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녀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 임의 녀이 아니거
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두견새가 펼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 임의 녀이 분명
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녀이라도 반가워라 / 근 오십 년 이
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꼬 / 새야 새야 우지 마
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맘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 침에 당
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 되어 천만년이나 살아 볼걸 /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첫째 낭군은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 셋
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 번 잘 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 첫째 낭군 죽
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 산을 보아도 부
끄럽잖고 저 새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귀로다 / 나도 수절
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할까
잔디밭에 떨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 모르는 안노
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싫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 보세 / 내 설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무슨 설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워하나 / 노인께선
들어가요 내 설움 알아 쓸데없소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 그 노인이 민망
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싫은가 / 간 곳마다 그러
리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중략)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테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 하고 신명타령 다 못할러라 / 영송이 밤
송이 다 썩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 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 하겠네 / 고약
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 고생대
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
람이나 되지그려 /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리려네
/ 고생 팔자 타고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이지
이팔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 아무 동네
화령택은 스물하나에 혼자되어
[A]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다섯 달 살다가 /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마는
아무 동네 장림택은 갓 스물에 청상 되어 / 제가 춘
광*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앓은뱅이 되었다데
*춘광: 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2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고향'의 자연 경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에 '나'는 상실감을 느낀다.
- ② '은행나무'는 귀향의 지표로서 '나'는 그것에서 '본고향' 본연의 모습을 느낀다.
- ③ 약 오십 년 만에 '본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이웃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고 대한다.
- ④ '안노인'은 '나'가 울고 있는 사정을 알고자 물어보지만 '나'는 침묵하고 울기만 한다.
- ⑤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만을 겪어 왔던 '나'는 '본고향'에서 더 큰 서러움을 느낀다.

2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 표명을 가정하여 그 실행을 만류하고 있다.
- ② 부정적인 사례들을 나열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청자를 명시함으로써 화자의 뜻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체험을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특정 행위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25. [두견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사별한 임의 현신으로 간주한다.
- ②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나타난다.
- ③ 화자가 반가워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된다.
- ④ 화자가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 ⑤ 화자가 새로운 임을 만나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6.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여성의 수절을 미덕으로 삼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통념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텐동 어미가 기존의 자신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성장에 도달한 과정은 통과 의례(通過儀禮)의 성격을 갖는다. 인간 성장에 대한 원형적 구조로서 통과 의례는 자신이 속했던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는 ‘분리’,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는 ‘전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모습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통합’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며 텐동 어미는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여 달관하는 한편, 남성에게 의존하여 고난을 피해 가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의 경지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첫째’에서 ‘넷째’까지 이르도록 화자가 거듭하여 시집가는 것은 수절이 미덕이던 기존 가부장제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통과 의례에서 ‘분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화자가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다시 한번 시집가기를 결심하고 이행한 것은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삶의 고난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다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영송이 밤송이 다 썩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본 경험은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온갖 시련을 겪은 상황을 말하므로 통과 의례에서 ‘전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는 화자가 다시 시집간 것을 후회하며 기존 사회로 돌아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룬 모습이므로 통과 의례에서 ‘통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활 팔자는 고생하지’에서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난을 삶의 본질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달관하는 화자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군.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만산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만발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애삼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충천(沖天)에 높이 떠 두 날개 훨썬 펼 펼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응어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 우쭐 활활 춤을 춘다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로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였으니 경개무궁(景概無窮)이 좋을
 시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어주축수애삼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의 한 구절 ‘어주축수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 든 봄빛을 사랑하네.)’의 오기인 듯함.

*양류세지사사록한데 황산곡리당춘절: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른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남.

*연명오류: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인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쓴 진(晉)나라의 문인 도연명이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을 가리킴.

*소부 허유: 고대 중국 요임금 때 기산 영수에서 은거하던 이들의 이름.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주걱새 우는 소리는 천고의 절개요 소쩍새가 우니 일 년 농사 풍년 들겠네.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꽃과 나무의 색채 대비를 통해 숲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흐르는 물을 묘사하면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기러기를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작품의 지배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이상적인 공간을 언급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경치로 인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감을 형성하는 열거의 대상 중 하나이다.
- ② 정서를 지닌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다.
- ③ 성장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계절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움직임은 드러내어 정적인 대상과의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풍경 묘사에 활용되어 작품의 분위기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유산가」는 조선 말기에 도시의 유흥 공간이 확대되면서 주로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창작하여 가창하고 전승한 노래들을 통칭하는 ‘잡가’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도시의 신흥 상공인 계층이 잡가를 듣고 즐기다가 점차 서민과 상류 양반층으로까지 잡가의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언어 사용 양상도 변화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잡가에는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갈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예컨대 네 마디 율격이 연속되는 잡가는 가사에 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잡가는 대중적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재로 삼았기에,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 ① 자연이 심신을 수련하는 공간이 아니라 ‘산천경개 구경’의 대상으로 그려진 것은 잡가가 지닌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 ② 도시에서 가창된 노래이면서도 ‘죽장망혜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처럼 깊은 산속의 상황을 소재로 삼은 것은 대중적 흥미를 고려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
- ③ ‘춘색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에서 드러나는 율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통해 형식 면에서는 기존 갈래인 가사에 뿌리를 둔 작품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 ④ ‘어주축수애삼춘이라더니’처럼 중국의 한시 구절을 인용한 것은 상류 양반층으로 확대된 향유층의 취향을 고려한 언어 사용 양상이 드러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⑤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는 신분이 낮은 직업적 가객들이 도시의 유흥 공간에 주로 머물던 것이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연>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2연>

[A]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5연>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0연>

[B]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강산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띄여라 노다 가세
 <11연>
 - 작자 미상, 「본조 아리랑」 -

(나)
 신고산 우루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붓집만 찐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연>

[C] 어린아해 밥 달라고 발버둥질 치는데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누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3연>

[D] 정든 님을 다리고 산나물을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 차를 탈까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5연>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 몸
 언제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할가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9연>

상개굴 큰애기 님 오기만 기다리고
 푸룻푸룻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0연>

[D] 독수리 날뛰자 병아리 간곳없구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 님 간곳없구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1연>

부령 청진 가신 님 돈 별면 오고
 공동묘지 가신 님 언제나 오나
 어랑 어랑 어허야 어러림마 띄여라 연사연이로구나
 <12연>
 - 작자 미상, 「신고산 타령」 -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과 달라진 개인적 삶의 양상이 나타나 있다.
- ② 구체적 공간을 언급하고 해당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정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초월적 세계에서의 삶을 떠올리고 해당 세계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각 연의 상황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1. <보기>와 관련지어 (가)의 <1연>, <2연>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씨 가문의 사람인 명성 황후가 살해된 지 5년 후인 1900년, 고종 이희는 충성을 바치다 먼저 떠난 신하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지금의 중구, 즉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지었다. 처음에는 을미 사변과 갑오년에 순직한 신하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올렸고 추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순의, 사절한 문신들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조직한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하며 조총을 쏘았다. 국권을 상실한 후 장충단은 결국 일제의 지시에 의해 폐사되고 만다. (가)의 '장충단'은 '장충단'을 말하는 것으로, (가)의 1, 2연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① 조선의 임금인 '이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연>의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에는 충성을 바치다 죽음을 맞이한 신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군.
- ② 명성 황후가 '민씨'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연>의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는 임금의 외척들이 임금의 친족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1900년에 장충단을 지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연>의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를 통해 이 민요의 가사가 형성된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장충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식 군대가 군악을 연주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2연>의 '군 악대 장단'은 신식 군대를 떠올리게 하려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국권을 상실하고 장충단이 폐사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2연>의 '받들어 총만 한다'에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현실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겠군.

32. [A]~[E]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성격이 비슷한 두 개의 상황을 나열하여 변화하는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며 의미를 강조하여 화자가 염원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는 두 대상의 행동에서 공통된 요소를 찾아 부정적 세태를 풍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④ [D]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을 병치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는 자연물의 모습과 인간사의 모습을 나란히 두어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을 강화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의 각 연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요의 사설을 장내 언술과 장외 언술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내 언술은 설정된 상황 안에 존재하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상황, 심리를 털어놓는 서술 방식이라면, 장외 언술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 외부의 상황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내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스스로 당면하고 있거나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가 많고, 장외 언술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관찰 대상과 거리를 두며 살펴보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제시된 상황에 얽매어 있을 때에는 장내 언술을,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장외 언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 ① (가)의 <6연>은 화자가 '말깨나 하는 놈', '일깨나 하는 놈'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거리를 두며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외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 ② (가)의 <10연>은 임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상황을 언급하며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리를 털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장내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 ③ (나)의 <1연>은 상황 밖에 존재하는 화자가 신고산 '함흥차'의 모습과 구고산 '큰애기'의 행동을 관찰하여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외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 ④ (나)의 <9연>은 '바람 많은 세파'나 '걱정 구름'에 얽매어 지내는 '나의' 당면한 상황과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장내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 ⑤ (나)의 <12연>은 화자가 '부령 청진 가신 님'이나 '공동묘지 가신 님'을 기다리는 인물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장외 언술을 선택한 것이겠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워야 ㉠소쿠리도 안 차요

[B] 올해는 벼 베는 이 숨씨 하도 좋아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 이달, 「습수요」 -

*관창: 예전에, 관가의 창고를 이르던 말.

(나)

[C] 밭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D]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물을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E]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가려 해도 고을 관리 겁이 난다오
- 김창협, 「산민」 -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화자가 대상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유사한 모습을 지닌 자연물을 나열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적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물의 의지를 보여 준다.
- ② ㉠은 ㉡과 달리 공간적 배경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곳임을 알려 준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행위를 조롱하려는 인물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인물이 결핍을 느끼게 한다.
- ⑤ ㉠과 ㉡은 모두 세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한시로 담아냈다. (가)와 (나)의 작가 또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에도 예리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 ① [A]에서는 ‘이삭을 줍’고 [D]에서는 ‘산밭’을 가는 행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군.
- ② [B]에서는 벼 베는 숨씨가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삭 줍는 어린애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군.
- ③ [B]에서는 ‘벼 베는 이’와 ‘관창’, [E]에서는 ‘산골짜기에 사는’ 이와 ‘고을 관리’의 관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관리들의 횡포 때문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④ [C]에서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는 [D]와 [E]를 통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궁핍한 가운데 순박한 인정을 잃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⑤ [D]에서는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저 너머 평지’의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부조리한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青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가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웠은들 잊은 틈이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노적 화총: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일반 청의미: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 인물.

37.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다.
- ② 배를 타며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하는 삶이다.
- ③ 자연과 친화를 누리며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이다.
- ④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다
- ⑤ 고기를 낚는 고된 노동에서 정신적인 보람과 기쁨을 찾는 삶이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 <제2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동일한 자연물의 역동적인 변모에 대한 묘사는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3수>는 모두 자연물이 가진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경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제2수>와 <제4수>는 모두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느끼는, 주위 자연물들과의 일체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제3수>에서 <제4수>로 이어지며 나타나는 공간 이동은 화자가 느끼는 결핍감이 충족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제4수>와 <제5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전형을 형상화하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부단가」에서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이라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극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강호 자연은 부패한 세속적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 영역으로 형상화되었다. 따라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 분할을 전제로 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결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강호 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정치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① ‘천심 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는 ‘인세’와 대립을 이루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무심’의 도덕적 영역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십장 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에 월백’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던 화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일반 청의미’는 부패한 세속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강호 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마음 상태라 할 수 있군.
- ④ ‘장안’, ‘북궐’과의 거리를 ‘천 리’로 나타낸 것은 강호 자연과 정치 현실 사이에서 화자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 분열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어주에 누워 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는 대상을 ‘제세현’이라는 대안을 떠올림으로써 떨쳐 버리는 것에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결의를 엿볼 수 있군.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

2023학년도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 정답지

2주차 문학 - 고전시가

1	④	2	③	3	④	4	②	5	④
6	⑤	7	⑤	8	④	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②	14	①	15	③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④
21	⑤	22	①	23	②	24	④	25	⑤
26	④	27	④	28	③	29	⑤	30	④
31	①	32	③	33	⑤	35	⑤	35	④
36	⑤	37	⑤	38	③	39	②		

2023학년도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은 정답지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해설은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혹은 EBSi 수능특강 강의를 참고하세요.